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게 되어요. 우리는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 5. 감사

오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을 적어 보세요.

## 6. 기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7. 가족 미션

<분무기를 이용해 무지개 만들기>

무지개를 잘 보려면 공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많아야 해요. 우리가 수많은 작은 물방울을 통해 빛이 가진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솔직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준비물: 분무기, 물

방법:

1. 햇빛이 강한 날에 분무기에 물을 채운 후 베란다 또는 마당으로 나가세요.
2. 해를 등지고 서서 분무기의 방향을 조절하며 물을 뿌려 무지개를 만들어 보세요.

### \* 주일예배 준비하기

가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1.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2.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 단정한 옷을 준비합니다.
5.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2월 22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 2. 기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 3.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새번역 성경>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 ≡ 본문 이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12절).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대상 10:13~14).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약탈하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요(15:15).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15:35).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시 135:4)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다스릴 왕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13:13~14).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며 그의 아들 중 기름 부을 자를 알려 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한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에 양을 치러 간 막내아들 다윗을 불렀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감정, 의지, 이성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셨어요. 결국 다윗 왕조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지요(행 13:22).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대상 10:13~14).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삼상 15:15).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삼상 15:35).

“주님께서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시 135:4).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삼상 13:13~14).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행 13:22).

#### 4. 나눔

1)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무엘의 기준은 어떻게 달랐나요?(7절)

- 저학년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무엘의 기준은 어떻게 달랐나요?(7절)

- 유아·유치  
하나님은 겉모습과 마음 중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7절)

####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에서 찾아 표시해 보세요.  
예) 용모, 키, 외모, 중심 등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이새는 왕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막내아들 다윗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가장 어리고 작은 다윗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무엘 또한 장남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엘리압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2)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요즘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 저학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요즘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 유아 유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이 가득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 ≡ 질문 가이드

각자의 속마음과 관심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 중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주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요.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게임, 친구, 성적, 성공, 외모 등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 사느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